

# 안방극장까지 옮겨 붙은 ‘챌린지’ 열풍

ENA 화제작 ‘우영우’ 인사 SNS 점령  
틱톡 오른 일부 영상 1900만뷰 돌파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앞다퉀 참여  
웹드 ‘미미쿠스’ 댄스 챌린지도 인기

아이돌 스타들과 그 팬들을 중심으로 유행한 일명 ‘챌린지’가 안방극장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챌린지’는 온라인상에서 퍼져가는 일종의 ‘릴레이 놀이’로, 주로 아이돌 가수들이 신곡의 안무를 짧은 영상으로 찍어 SNS로 공개한 뒤 팬들이 이를 따라 추도록 유도하며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케이블채널 ENA의 화제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일부 드라마 제작진이 이를 적극 활용한 이벤트를 펼쳐 눈길을 끈다.

### ●스타들까지 참여

15%(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넘기며 신드롬급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진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우영우 인사법 챌린지’를 시작했다.

극중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박은빈)와 친구 동그라미(주현영)의 독특한 인사법을 따라 하는 내용이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우 투 더(To the) 영 투 더 우”, “동 투 더 더 더 라미”라는 대사를 랩처럼 읊조리며 특유의 손동작을 취한다. 제작진은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유튜브와 틱톡 등을 통해 이틀처럼 춤추듯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에 #Woo\_Challenge(우 챌린지)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진이 주인공 박은빈·주현영(맨 위사진)의 인사법을 따라하는 ‘우영우 인사법 챌린지’를 열어 화제다. 아래 사진은 챌린지에 참여한 그룹 세븐틴(왼쪽)과 걸그룹 라잇썸, 사진제공 | 에이스토리·세븐틴 틱톡 채널·라잇썸 유튜브 채널

해시태그를 추가한 시청자 영상을 공모하고 있다. 이미 틱톡에 오른 일부 영상은 19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세븐틴, 스테이씨, 위아이, 라잇썸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도 참여해 드라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웹드라마 ‘미미쿠스’ 제작진도 극중 설정을 활용한 ‘대공예 챌린지’를 펼치고 있다. 극중 대한공연예술고교생 유영재, 조유리, 김윤우, 그룹 우아의 멤버 나나(권나연) 등이 아이돌 댄스를 따라 추는 모습을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다. 모바일게임 화면을 응용, 10~20대들의 인기를 모은 ‘게임 챌린지’ 등도 촬영해 선보이고 있다.

### ●“시청자 몰입 돕는 효과도”

각 제작진은 이 같은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의 호기심을 끌고, SNS 상 관련 영상으로 더욱 폭넓은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영화 제작총괄 PD는 28일 “이야기가 이제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남은 방송 기간에도 드라마의 화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미미쿠스’ 제작진은 “아이돌 팬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챌린지’ 방식을 택했다.

제작사인 플래이스티의 류진아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극중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기자들이 참여해 시청자가 실제처럼 느낄 수 있기를 기대했다”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챌린지 영상이 최대 67만 뷰를 기록하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무면허 음주운전’ 노엘, 항소심도 실형



노엘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노엘(장용준·2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노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출몰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 류승룡, 뉴욕 아시안영화제 최우수 연기상

배우 류승룡이 27일(한국시간) 영화 ‘장르만 로맨스’로 제21회 뉴욕 아시안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 새뮤얼 하미에르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스크린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대체 불가한 배우를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인정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류승룡은 “앞으로도 기발한 이야기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한국 영화를 전 세계 관객 모두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르만 로맨스’는 슬럼프에 빠진 베스트셀러 작가 류승룡이 젊고 유망한 작가 무진성을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 故송해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고 송해가 ‘제49회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특별상에 선정됐다. 28일 한국방송협회는 “1955년 데뷔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방송사에 한 획을 그은 송해에게 만장일치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여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대상은 매년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전달하고 방송 발전에 기여한 작품과 방송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심사위원단은 출품된 작품 234편과 방송인 51명을 대상으로 예·본심을 거쳐 작품상 24개 부문 26편, 개인상 18개 부문 18편을 선정했다.

#### 최자 낙상사고…예능 ‘리슨 업’ 발표회 불참

합합듀오 다이나믹듀오의 멤버 최자가 낙상사고를 당해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리슨 업’ 제작발표회에 불참했다. 28일 소속사 아메바컬처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서서 최자가 최근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어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일정 기간 안정과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라면서 “현재 경과를 지켜보면서 회복에 전념 중”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첫 방송되는 ‘리슨 업’은 라이언전, 팔로알토 등 10명의 톱 가요 프로듀서들이 음원 차트 경쟁을 벌이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 대만 청춘스타 허광한, 데뷔 첫 한국 팬미팅



허광한

드라마 ‘상견니’로 잘 알려진 대만의 청춘스타 허광한이 데뷔 이후 첫 팬미팅을 한국에서 갖는다. 28일 대만 소속사인 IC HI엔터테인먼트는 “허광한은 9월 3과 4일 양일간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팬미팅 ‘프레젠트 인 서울(Present in Seou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허광한은 넷플릭스, 왓츠 등 전 세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후 10억 뷰 기록한 ‘상견니’의 주인공으로 국내에서도 엄청난 팬덤을 확보했다. 박보영·김영광 주연의 ‘너의 결혼식’의 대만 리메이크작인 ‘여름날 우리’의 주인공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웹툰 원작 영화·드라마 “원작자 모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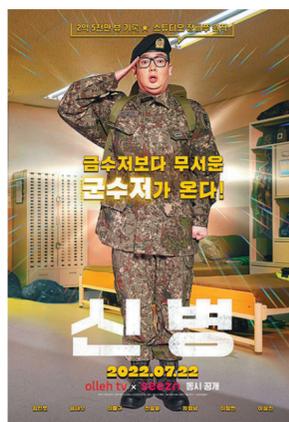
‘찌질의 역사’ 김풍, 드라마 각색 참여  
OTT 공개 ‘신병’도 웹툰 작가와 호흡  
“작품 고유의 매력·색깔 극대화 효과”

웹툰 원작 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웹툰 작가들이 잇따라 각색 작업에까지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원작의 설정과 내용을 구성한 주역인 만큼 더욱 풍성하고 새로운 이야기와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작 웹툰이 끌어 모은 팬들의 시선을 드라마로까지 이어가려는 제작진이 전략이기도 하다.

배우 조병규의 복귀작으로 4월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2013년부터 4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한 웹툰이 원작이다. 당시 스토리를 구성한 김풍 작가가 드라마의 대본도 직접 다시 썼다. 김 작가는 20대에 막 접어든 청춘의 지질한 연애담을 적나라하게 그려냈다. 영화 ‘공조’, ‘창궐’의 김성훈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22일 공개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즌의 오리지널 시리즈 ‘신병’의 극본은 웹툰 원작의 장베짜 작가가 ‘SNL코리아’ 등에 참여한 김단·안용진 작가와 함께 썼다. 그는 자신의 실제 군 생활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영상 웹툰(숏폼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미 317만 구독자를 모았다.

내년 선보일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의 대본도 원작 웹툰을 그린 강풀 작가의 손에서 완성됐다.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을 내세워 한국형 슈퍼 히어로물을 표방하는 드라마는 류승룡·한효주·조인성 등 톱스타들이 주연하고, 500억 원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는 기대작으로 꼽힌다. 강풀 작가는 자신의 원작에는 없었던 새 캐릭터와 뒷이야기까지 그려 예정이다.



동명의 원작 영상 웹툰의 원작자 ‘장베짜’가 극본에 참여한 시즌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의 포스터. 사진제공 | KT 스튜디오지니

이에 앞서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와 JTBC ‘이태원 클라쓰’도 각각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조광진 작가가 각색에 참여해 호평 받았다. 김보통 작가와 ‘D.P’의 연출자 한준희 감독은 내년 시즌2 대본도 함께 쓰고 있다.

웹툰 작가들은 자신들의 원작을 영상화하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고유의 매력과 색깔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는다. 김 작가와 함께 ‘D.P’ 극본을 쓴 연출자 한준희 감독은 “원작자의 디테일과 결을 살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원작자와 함께 또 다른 웹툰 기반 드라마를 준비 중인 한 제작사 관계자도 28일 “웹툰 원작의 작가들이야말로 해당 작품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다”면서 “작가가 직접 각색에 참여하면 작품의 의미와 메시지를 왜곡 없이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이종석



김세정



손현주

## ‘주말극’ 이종석 vs 김세정 vs 손현주

이종석, 금토 ‘빅마우스’ 29일 첫방  
김세정, 같은 날 ‘오늘의 웹툰’ 공개  
손현주는 ‘모범형사2’로 안방 공략

배우 이종석, 손현주, 김세정 등이 시청률 격전지로 꼽히는 주말에 일제히 주연 드라마를 내내 경쟁의 열기를 달군다.

이종석과 김세정은 29일부터 방송하는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와 SBS 금토 드라마 ‘오늘의 웹툰’을, 손현주는 30일 방송예정인 JTBC 토일드라마 ‘모범형사2’를 선보인다. 앞서 방송을 시작한 tvN 토일드라마 ‘환혼’과 4파전을 이루는 이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내세워 시청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19년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이종석은 ‘스타’ 제작진과 손잡고 액션 장르에 도전한다. tvN ‘백일의 낭군님’ 등을 기획한 소재 책임프로듀서(CP), tvN ‘호텔델루나’를 연출한 오충환 PD 등이다. 드라마는 한류스타인 이종석과 글로벌 흥행을 거둔 제작진의 조합으로 일찌감치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임윤아가 이종석과 부부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살인사건에 휘말려 사기꾼으로 몰린 변호사와 그의 아내를 연기하며 특권층의 음모를 파헤친다.

김세정은 4월 종영한 SBS ‘사내맞선’에 이어 ‘오늘의 웹툰’으로 다시 한번 리메이크의 힘을 발휘할 기세다. 그는 일본 TBS의 2016년 드라마 ‘중쇄를 찌자!’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에서 유도 출신 신인 웹툰 편집자를 연기하며 치열한 웹툰 세계를 그린다. 특유의 발랄하고 코믹한 연기도 내세운다. 전자 ‘사내맞선’을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 최고 4위까지 올려놓은 그는 “‘2연타’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며 “평소처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JTBC ‘모범형사2’를 내놓는 손현주는 2020년 8월 종영한 시즌1의 인기를 발판으로 시청률 순위 선전에 나선다. 장승조, 조희봉, 차재형 등 앞선 시즌에 등장한 배우들과 의기투합해 인천서부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앞선 시즌은 방영 당시 7.6%(닐슨코리아)까지 시청률을 끌어올린 바 있다. 손현주는 “시즌 1보다 진해진 팀워크로 새로운 재미를 안 기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